

러시아 메가 이벤트와 소치 동계올림픽의 정치경제: 성공과 실패의 변곡점*

정기용 |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국문요약 |

본고는 러시아 메가 이벤트 개최 정책결정의 매트릭스(matrix)에 대해 고찰하고, 그 정치경제적 목표들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 요소에 관심을 집중하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첫째, (대내적으로) 국내적 과시와 지대의 분배를 통해 대중과 엘리트의 지지 및 충성을 확보했는가의 여부이다. 둘째,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 고양을 통한 소프트 파워를 증진시키는데 성공했는가의 여부이다. 본고는 이 두 요소를 중심으로 소치 동계올림픽의 특징들을 고찰하고 그 함의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에 근거하여 소치 동계올림픽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논의에 근거하여 러시아의 경험이 메가 이벤트 개최에 던지는 함의를 파악한다.

이러한 기준에 근거했을 때 소치 동계올림픽은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지와 충성의 확보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성공적이었으나, 국가 이미지 상승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했을 때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소치 동계올림픽은 러시아 역사, 혹은 푸틴의 권력사에 있어 성공과 실패로 나아가는 매우 중대한 변곡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성공의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실패의 길로 나아가느냐는 지도자 개인, 러시아의 지배집단, 러시아 국민, 그리고 세계시민과 국제사회와의 역동적 상호작용 속에 결정될 것이다.

주제어 | 러시아, 소치동계올림픽, 정치경제, 스포츠정치, 메가이벤트

* 본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14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I. 들어가는 말

2014년 2월, 세계의 눈은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고 있는 러시아 소치(Sochi)에 집중되었다. ‘열정적이고 멋진 여러분의 올림픽(Hot, Cool, Yours)’을 모토로 17일간 펼쳐진 소치 동계올림픽에는 88개국, 2800여명의 선수가 출전함으로써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수의 참가국과 참가선수를 기록했다.¹⁾ 소치는 참가국과 참가선수의 수에서 뿐만이 아니라 비용 면에서도 역사상 가장 비싼 올림픽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러시아는 소치 동계올림픽에 무려 500억 달러²⁾(약54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고,³⁾ 이는 하계 및 동계를 포함한 역대 올림픽 소요예산 중 가장 많은 액수이다.

1998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동계올림픽 개최권 획득에 연달아 실패한 후, 2007년 7월 4일 과테말라(Guatemala)시에서 개최된 119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재도전한 소치가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 선정되었을 때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의 승리는 “의심할 바 없는 우리 조국에 대한 평가”라고 언급하였다(Kishkovsky 2007).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맛보았던 실망을 극복하고자⁴⁾ 러시아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재정적·정치적 자본을 올림픽에 쏟아 부었다.

올림픽이 종료된 지금,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여부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러시아가 ‘올림픽의 저주’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역대 최악의 재정적 실패의 사례로 꼽히는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Montreal) 올

1) <http://www.olympic.org/sochi-2014-winter-olympics> 검색일: 2014년 8월 15일.

2) 이하 표기되어 있는 달러는 모두 미국 달러화(USD)를 의미함.

3) 논자에 따라 510억 달러 혹은 그 이상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 소요예산을 5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올림픽을 위해 러시아 시민 1명당 350 달러를 지출했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Müller 2011, 2014; Bowring 2014 등을 참조할 것.

4)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의 경우 61개국이 보이콧(boycott)을 결정하여 참가하지 않았다. 모스크바 올림픽 보이콧 과정을 미국 정치와 미디어의 결탁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한 연구로는 Moretti 2013을 참조할 것.

림픽의 경우 15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상환하는데 30년이 걸렸다.⁵⁾ 소치의 부담 또한 만만치 않아서 크라스노다르 변경(Krasnodar Krai) 주지사인 트카초프(Alexander Tkachev)는 새로 건설된 스포츠 시설들을 유지하는 데만 1년에 3억5천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Volkov 2014). 블룸버그(Bloomberg) 통신의 경우 더욱 심해서 올림픽 시설물들을 유지하는 데만 연간 17억~22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⁶⁾ 인구 40만의 조그만 도시 소치가 과연 이 금액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인가? 소치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은 올림픽이 끝나는 순간 소치에 집중되어 있던 러시아 정권 핵심부의 관심도 함께 사라졌을지 모른다는 점이다.⁷⁾

화려한 축제의 이면에는 이 밖에도 다른 많은 우려 섞인 사건들이 감춰져 있었다. 특히 올림픽 개최 전부터 우려를 불러 일으켰던 북코카서스(North Caucasus)와 관련된 테러행위들,⁸⁾ 올림픽 기간 중 발생한 우크라이나의 폭력 사태와 대통령 도피, 올림픽 시설물 건설을 둘러싼 횡령과 부패의 소문들은 소치의 이면이 밝은 빛이 아님을 보여준다. 특히 올림픽이 끝난 후 더욱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와 서방 간의 대결 국면으로 진전됨으로써 러시아 경제를 비롯한 상황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⁹⁾

5) 몬트리올의 경우 올림픽 경기 개최를 계획할 때 1억2천5백만 달러를 예측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20억 달러를 사용했다. 결국 15억 달러의 빚을 질 수 밖에 없었고, 이 빚은 2006년 12월에야 다 갚을 수 있었다.

6) https://archive.org/details/BLOOMBERG_20140528_080000_The_Pulse 검색일: 2014년 7월 5일.

7) 최소한 소치의 재정형편과 관련하여 이러한 우려는 어쩌면 너무 앞서 나간 것일지도 모른다. 소치 동계올림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가 주도하에 이루어졌기에 재정적자가 온전히 소치 지방정부만의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은 매우 적기 때문이다. 더불어 2014년 6월에 예정되어 있던 G8 정상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활용계획은 소치를 살리고자 하는 러시아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G8 정상회담이 취소됨으로써 소치에 대한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8) 북코카서스 지역의 사정 및 테러 등에 관해서는 Petersson 2014, Orttung and Zhemukhov 2014 등을 참조할 것.

9)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에 대해서는 민지영 2014를 참조할 것.

러시아 내부의 사정도 마냥 좋지만은 않다. 천연자원에 재정수입의 절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세계경기와 자원시장의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현재 러시아 수출의 75%는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자원이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수치이다. 러시아 곡물의 45%는 수입된 것이며, 시장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물건들 또한 수입된 것들이다. 2013년 세계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지만, 러시아의 경제성장은 1.3%에 그쳤으며, 심지어 푸틴 스스로 경기후퇴의 주된 원인은 내부적인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2014년 상반기에도 경제성장의 둔화가 심화되어 약 0.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4년 1분기의 경우 러시아 경제는 전년 동기대비 0.9% 성장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0.5%로 사실상 GDP 감소를 경험하였다(정성춘 2014, 63).

푸틴이 많은 돈을 쏟아 부으면서 보여주고자 했던 ‘강한 러시아’는 어쩌면 올림픽이 끝나는 순간 사라져 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이러한 결과, 특히 경제적 부담을 예상하지 못한 것일까? 그 답은 ‘아니다’에 가깝다. 메가 스포츠 이벤트, 특히 올림픽의 개최와 관련하여 장밋빛 전망만을 쏟아내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 스포츠의 경제학에서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그다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존재한다(박보현 2008; 안영도 2002; 정희준 2008; Horne 2007; Siegfried & Zimbalist 2006; Szymanski 2002; Flyvbjerg 2006; Whitson and Horne 2006). 더군다나 소치에 사용된 돈의 규모를 생각한다면 애시 당초 투자한 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단기간에 뽑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아니 처음부터 아예 돈을 벌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태에서 러시아는, 아니 푸틴은 왜 그토록 많은 돈과 에너지를 쏟아 부었는가?

소치 올림픽의 개최는 경제적 이익의 추구보다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여기서 올림픽이 얼마나 빈번하게 정치적으로 사용되어 왔는지를 다시 지적하는 것은 새삼 진부할 뿐이다. 스포츠, 특히 올림픽의 정치적 사용에 관한 많은 기존의 연구들이 있고, 소치의 경우도 이와 같은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¹⁰⁾ 러시아에게 있어 올림픽의 개최는 1990년대 소련방의 해체 이후 겪어야만 했던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격변을 극복하고 러시아가 다시

강대국으로 재건되었음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기회로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는 동시에 푸틴의 개인적 성취와 동일시되어짐으로써 그의 집권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갖는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 메가 이벤트 개최 정책결정의 매트릭스(matrix)에 대해 고찰하고, 그 정치경제적 목표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논의를 전개한다. 그것은 첫째, (대내적으로는) 국내적 과시와 지대의 분배를 통한 대중과 엘리트의 지지 및 충성의 확보이며, 둘째, (대외적으로는) 국가 이미지 고양을 통한 소프트 파워의 증진이다. 본고는 이 두 요소를 중심으로 소치 동계올림픽의 특징들을 고찰하고 그 함의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에 근거하여 소치 동계올림픽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논의에 근거하여 러시아의 경험이 메가 이벤트 개최에 던지는 함의를 파악한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 연구들이 천착하고 있는 메가 이벤트 개최의 정치경제에 대한 분석의 적실성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메가 이벤트 개최를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국가들에게 점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러시아 메가 이벤트의 정치경제

1. 국가 정책 결정의 매트릭스(Matrix)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은 국가들의 국제적 행동을 설명하려고 할 때 국가들의 성격은 각자가 기초하고 있는 국내사회와 국제사회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지며, 국가들의 국제적 행위는 이러한 관계의 반영이라고 본다. 모라브직(Andrew Moravcsik 1997, 516)은 “국가들과 국가들이 배태되어 있는 국내적·초국적 사회

10) 올림픽의 정치적 이용에 관해서는 Hill 1992; Senn 1999; Grix 2013; 정기웅 2010; 정기웅 2012 등을 참조할 것.

와의 관계가 국가의 선호를 밀받침하고 있는 사회적 목적들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가들의 행태를 결정적으로 형성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가의 행위는 특정한 시점의 국가-사회관계(즉, 정권의 성격)에 따라 특정한 사회집단들의 이익을 반영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정진영 2004, 397). 이와 같이 결정되어 행해진 국가의 외교정책은 국제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다시 그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정기웅 2010, 333-336).

러시아 또한 이러한 분석틀에 근거하여 접근할 수 있다. 이 경우 러시아의 국제관계는 현재 러시아를 위요한 국제정세 속에서 대내외적으로 위대한 러시아의 부활을 내세우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푸틴 권력의 공고함을 다지고자 하는 지배집단과 이에 대응하는 내부집단의 상호작용이 표출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에 있어 이러한 상호작용은 어떠한 방식으로 표출되는가? 푸틴시대 러시아의 키워드를 하나만 선택한다면 그것은 ‘강한 러시아’ 혹은 ‘위대한 러시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러시아 특유의 대국주의¹¹⁾ 및 장대함의 과시와 맞물려 푸틴 정부 하에서의 유난히 많은 메가 이벤트 및 프로젝트들의 입안으로 연결되어졌다.

메가 이벤트란 “대규모의 (상업적 행사와 스포츠 행사를 포괄하는) 문화적 행사들로서 극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대중에게 어필하며 국제적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정의되곤 한다(Roche 2000). 메가 프로젝트는 이와 같은 메가 이벤트에 견줄만한 사업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메가 이벤트 및 프로젝트는 주최 도시와 지역 혹은 국가에 매우 중대한 결과를 가져다주며 또한 광범한 매체에 의해 주목받고 취급되어진다(Home and Manzenreiter 2006, 2).

메가 이벤트 혹은 프로젝트를 조직하고 개최하는 측에서는 대개 대중에 대하여 희망적인 이야기들과 긍정적인 전망들을 제시한다. 예로서, 올림픽의 개최가 스포츠 참여를 증가시킬 것이며(Hughes 2012),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자극을 제공하며, 여행의 증가를 가져오고, 일자리를 창출한다와 같

11) 러시아의 대국주의 및 정치적 신화와의 연관 관계 등에 대해서는 Persson and Petersson 2014를 참조할 것.

은 것들이다. 그러나 올림픽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조직위가 올림픽의 이점을 과다하게 계상한다는 것을 보여주며(Flyvbjerg 2006; Whitson and Horne 2006), 대개의 경우 이러한 낙관적인 희망들이 항상 실현 되었다 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Owen 2005; Whitson and Horne 2006; Shaw 2008; Müller 2012). 망간(Mangan 2008, 1870) 같은 이는 “동계올림픽이 주된 경제 효과를 가져왔다는 어떠한 소중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까지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 권위주의적 정권 하에서의 집중화된 메가 이벤트 혹은 프로젝트는 정권의 정치 경제적 목표 달성에 매우 많은 도움을 준다는 주장 또한 존재한다(Orttung and Zhemukhov 2014, 175).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메가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국제적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그 최선의 성취를 외부로부터 인정받는 효과를 갖는다. 둘째, 메가 프로젝트는 이질적 지역과 도시 지역의 통합적 발전이 결여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를 규정짓는 사실상의 정책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메가 프로젝트는 뚜렷한 이데올로기 부재로 특징지어지는 오늘날과 같은 시기에 대중들로 하여금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무거운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또한 러시아의 현 정치경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엘리트들에게 지대(rent)를 배분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대중과 엘리트의 충성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평가한다면, 러시아에 있어 메가 이벤트 혹은 프로젝트는 적어도 집권층에게 있어서는 실(失)보다는 득(得)이 많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푸틴은 ‘러시아 10년 영광의 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소치 올림픽 유치로부터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이르기까지의 10년을 메가 이벤트 및 프로젝트로 가득 채움으로써 ‘위대한 러시아’의 모습을 대내외에 과시할 기회로 삼고자 하고 있다.

2. 러시아의 메가 이벤트 혹은 프로젝트들

소치 올림픽 외에도 지난 몇 년간 러시아에서 진행되었거나 향후 몇 년 간 진

행될 많은 메가 이벤트 및 프로젝트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사업들에는 예외 없이 많은 예산이 사용되어졌다. 예로서 2012년 9월의 APEC 정상회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Summit)을 위해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을 재건축 하는데 200억 달러를 사용했으며(Kalachinsky 2010), 극동개발을 위해 420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Medetsky 2013), 2013년 7월 카잔(Kazan)에서 개최된 유니버시아드(Universiad) 게임에는 69억 달러의 예산이 사용되었다. 한 달 뒤인 2013년 8월에는 모스크바(Moscow)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World Athletics Championships)를 개최하였다. 2017년에는 컨페더레이션스컵(Confederations Cup)이 예정되어 있고, 2018년에는 모스크바 월드컵이 예정되어 있다.¹²⁾ 모스크바 월드컵 또한 소치의 경우처럼 역사상 가장 비싼 월드컵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이루어지고 있다(Müller and Wolfe 2014). 이와 더불어 152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러시아의 실리콘 벨리로 불리는 스킨코보(Skolkovo) 혁신센터 조성계획(Ulyukaev 2013), 상테 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의 가스프롬 타워(Gazprom Tower) 건설(Reshetnikov 2011), 그리고 다양한 에너지 가스관 공사들(Nord Stream과 South Stream이 대표적인데, South Stream의 경우 390억 달러 소요 예상; Hill 2010)과 APEC 정상회담에 맞춰 진행된 루스키(Russky)섬 관광복합단지 건설, 모스크바 글로벌 파이낸스 센터(Global Finance Center) 건설 등이 대표적인 메가 프로젝트들이다.

일부 논자들은 러시아에 있어서의 이들 메가 이벤트 및 프로젝트들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들 주장의 요지는 “이들 메가 이벤트 및 프로젝트는 다른 연방 예산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와 같은 논리 하에 작동된다. 예로서 국가 무기 조달 프로그램과 같은 것들 말이다(Bryce-Rogers 2013). 즉 그것들은 매우 많은 국가 기금의 사용을 요구하며, 이 모두를 관통하는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이 모든 이벤트 및 프로젝트들이 관련자들에게 부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Hedlund 2014).”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치를 비판하는 논자들 중 일부는 소치의 엄청난 예산 낭비의 한 예로서 해변지대인 소치 올림픽 공원과 산악지대인 크라스나야 폴라나(Krasnaia Poliana)를 연결

12) 컨페더레이션스컵과 월드컵 개최를 위한 러시아의 대비 등에 대해서는 Lelyukhin 2014를 참조할 것.

하는 도로 건설에 사용된 비용을 예로 들곤 한다. 이 도로의 건설비용은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초기의 27억 달러에서 78억 달러로 증가하였는데¹³⁾ 이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화성탐사로봇 계획에 소요되는 예산보다도 더 많은 액수이다. 러시아판 에스콰이어(*Esquire*)는 그 돈이라면 그 도로를 21.9cm 두께의 푸아그라(Foie Gras)로 덮을 수 있을 정도라고 언급하였다.¹⁴⁾ 이는 소치 올림픽 준비과정에 있어 예산집행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¹⁵⁾ 그리고 그 보이지 않게 사라진 돈은 어디로 갔는지를 추측하게 만드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다(Arnold and Foxall 2014, 6).

III. 동계올림픽, 소치, 그리고 경제적 효과

1. 러시아는 왜 올림픽을 택하였는가?

대외적인 측면에 있어 국가들은 스포츠를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사용해 왔다. 첫째, 국가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팔아 자국의 이미지를 고양하는 ‘이미지 확장’의 측면에서이고, 둘째, 자국이 찬성하지 않는 국제적 행위에 대해 특정 경기에의 참여 여부로 의사를 표명하는 방식이다. 셋째, 타국과의 스포츠 경기를 활용함으로써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거나 타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는 방식이다(정기웅 2009, 242).

13) 논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82억 달러라는 주장도 있음.

14) 에스콰이어는 다양한 비교를 통해 도로건설에 사용된 비용의 막대함을 보여준다. 그 도로에는 1.1cm 두께의 블랙 캐비어(Черная икра), 9cm 두께의 루이비통(Louis Vuitton) 핸드백, 4.7cm 두께의 모피코트, 6cm 두께의 송로버섯, 13.85cm 두께의 헤네시 코냑 등으로 뒤덮일 수 있다는 식으로 비교되었다. <http://esquire.ru/sochi-road> 검색일: 2014년 8월 15일.

15) 러시아 회계원(Audit Chamber of Russia)은 국영기업들이 소치에서 5억 달러 이상의 돈을 잘못 사용했다고 지적하였으며, 러시아 정부에 대한 비판자들은 유용된 기금이 300억 달러를 넘어서었다고 주장한다(Aron 2014, 3).

국가 이미지 확장 혹은 향상의 경우, 많은 연구들이 이미지 구축의 소프트 파워와 공공외교의 한 형태로서의 장소(혹은 지역) 브랜딩에 대해 논의해 왔다(Olins 1999, Black and Van Der Westhuizen 2004; Orueta and Fainstein 2009; Anholt 2010a). 코넬리슨(Cornelissen 2010, 3008)은 오늘날의 신흥세력(특히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 러시아, 브라질)은 스포츠 메가 이벤트 개최라는 공동의 아젠다를 갖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들 국가들은 “경제적 성취를 과시하고, 다른 형태의 국제적 영향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외교적 위신을 송신하거나 소프트 파워를 투사하기 위해” 메가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주장하였다. 1988년의 서울 올림픽과 2008년의 북경 올림픽은 어떻게 국가적 위신과 발전의 메시지가 올림픽 개최를 통하여 전달되어질 수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 바 있다(Gratton and Preuss 2008; Jinxia and Mangan 2008; Ren 2008). 2014년의 소치 올림픽도 유사한 동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파악되며, 같은 틀 안에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는 또한 정권의 대내적 응집성 향상 혹은 정치적 조작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특히 권위주의 국가의 경우 대중과 엘리트의 충성확보를 위해 빈번히 동원되어진다. 대중은 프로파간다(propaganda)와 상징을 통하여 국가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과 동일시하게 되며, 엘리트는 이벤트의 진행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대의 분배를 통해 정권에 대한 충성과 그 응집성을 공고히 한다. 선거를 통해 책임을 지거나 재정적 감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권위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추구되어지는 이와 같은 정치경제적 목적의 결합은 매우 광범한 비용 초과와 부패로의 길을 열어준다. 국내외에서 국가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겠다는 열망은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것을 정당화 시켜주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부패의 연결고리 속에 엘리트들에 대한 지대의 분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또한 메가 이벤트 혹은 프로젝트를 통해 공산주의의 붕괴로 말미암아 창출된 이데올로기적 공허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러시아의 성취를 강조함으로써 (그 허약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 또한 존재한다(Orttung and Zhemukhov 2014, 176).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올림픽은 체제 유지의 매우 훌륭한 도구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

소치는 또한 올림픽 유치가 권력의 헤게모니 강화를 통한 정치권력의 재생산

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주장은 ‘스포츠 메가 이벤트 유치 도전에 나서는 주체세력은 스포츠 메가 이벤트의 장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대중들의 지지를 얻고자 하지만, 이러한 지지의 궁극적 목적은 스포츠 메가 이벤트의 유치가 아닌 정치권력의 해계모니 강화와 재생산이라는 정치적 측면에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그러나 스포츠의 이러한 속성은 동시에 스포츠가 정치적 목표로서 작동하게 만든다.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유치는 흔히 ‘자국 스포츠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적 자부심을 고양하며, 성공적 운용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획득함은 물론 경제적 부가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정부의 선전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이와 같은 선전은 공언된 목표의 달성에 스스로를 구속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이처럼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개최가 대내적인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동원되어지고 있음이 명백해질 경우, 스포츠는 그 자체가 정치적 목표로서 작동하게 된다. 이때의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대상이 됨으로써, 도구로서 채택되었던 스포츠 이벤트가 목표로 변이되었기 때문에, 이를 도구로서 사용하고자 했던 행위자에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성공적 개최, 혹은 경기에 있어서의 성공이 국가의 성공과 동일시되어질 경우, 성공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 이벤트 개최의 실패 혹은 경기에 있어서의 실패는 국가의 실패와 동일시되어짐으로써 스포츠 이벤트 유치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세력에게 정치적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때 스포츠는 단지 도구로서 작동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달성해야 할 정치적 목표 자체로서 간주되게 되며, 이는 스포츠 경기와 국가행위자의 관계를 객체와 주체의 고정된 관계로서 파악하는 것에는 많은 무리가 뒤따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정기웅 2010, 349-351). 푸틴이 소치에서의 성공을 위해 러시아 체육인들에게 많은 보상을 제시하고 반복하여 그 분투를 요구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관관계는 개최자에게 양날의 검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즉 성공할 경우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겠지만, 실패할 경우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2. 러시아는 왜 소치를 택하였는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 보안의 문제, 환경과 기후의 문제 등을 이유로 소치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것에 대한 많은 비판이 이루어졌다(Peterson and Vamling 2013). 어떤 면에서 소치의 선택은 “신중하게 계산된 위험(a carefully calculated risk)”이라고 할 수 있다(Petersson 2014, 31). 소치는 북 코카서스 공화국에 인접해 있고 1990년대 이래 내부적 수요가 빈번하게 발생해온 곳이다. 가장 불안한 이 지역에서 질서 있고 안전한 올림픽을 치러 낸다면, 이는 체제에 상징적 승리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러시아가 국내를 안정시켰다는 것을 과시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계산이 작용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소치로 장소결정을 하는 데 있어 푸틴이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소치는 푸틴이 가장 좋아하는 스키 리조트이다(Meredova 2013). 소치로의 장소결정은 대중적 논의 없이 비밀리에 결정되었다. 푸틴이 러시아에 있어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이 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정은 2007년 혹은 그 이전의 어떤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것은 아마도 러시아 군대가 북부 코카서스 지방의 반란을 진압할 수 있게 되고 급등하는 기름 값에 근거한 강력한 경제성장기를 기대할 수 있을 때였다고 추측된다. 하지만 그 상황은 2008년 코카서스 에미레이트(The Caucasus Emirate)가 테러리스트 전선에 등장하고, 조지아(Georgia) 공화국과의 5일 전쟁, 세계경제침체로 인한 러시아의 경제 전망에 있어서의 급속한 하락 등으로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새로운 테러리스트의 위협과 경제적 불안함의 발호 하에서, 소치에 게임을 유치하겠다는 결정은 이전보다 덜 논리적으로 보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경기시설과 인프라가 아무런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극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와 같은 약점들이 소치의 올림픽 개최에 있어 강점으로 돌변하였다. 첫째, 아무런 인프라가 없다는 것은 최신의 인프라를 갖춘 새로운 시설을 도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IOC는 기반 시설이 없는 도시들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기반시설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새롭고도 최신인 설비를 구축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Large 2012, 32). 더불어 새로운 시설을 도입한다는 것은 외부의 기술을 갖춘 업체들에게 사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수백억단위의 공사가 창출되고 이를 외부에 오픈할 수 있다는 제안은 오히려 소치를 매력적인 개최도시로 만들었다. 두 번째, 소치가 갖는 정치적 약점의 극복을 통해 푸틴은 완전한 러시아를 만들고자 하였다. 일부 분리주의자들과 러시아 전통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남부러시아의 배제가 아닌, 적극적 투자를 통한 연방에의 흡수를 통해 하나의 정상국가로서의 러시아, 온전한 러시아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Persson and Petersson 2014). 그 결과의 성공여부를 떠나 이와 같은 역발상적 접근은 소치를 훌륭한 올림픽 개최지로서 비춰지게 만들었다.¹⁶⁾

물론 소치가 갖는 장점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소치는 흑해 연안의 휴양지로서 사계절 온화한 기후로 소연방 시절부터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휴양지로 꼽혀왔다. 소치는 진흙화산과 만년설 등 사계절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천혜의 지역이며, 1989년부터 매년 6월 ‘키노타브르(Кинотавр)’로 불리우는 소치 영화제를 개최해 왔다. 기후는 아열대에 속하고 1월도 평균기온이 3.7도로 따뜻하지만, 코카서스 산맥에는 눈이 내린다. 이런 특성 때문에 동계올림픽 기간 스케이트 종목은 흑해에 인접한 소치 시내의 경기장에서, 스키 종목은 크라스나야 폴라나 스키장에서 펼쳐진다. 크라스나야 폴라나는 해발 600m 지점에 위치한 드넓은 고원지대다. 러시아는 이 두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기차 노선을 신설했다.¹⁷⁾

3. 러시아는 경제적 이익 창출을 염두에 두었는가?

러시아가 소치 동계올림픽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는 선불리 답하기 힘들다. 무엇보다도 올림픽의 비용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경우에도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올림픽이 어디에서 개최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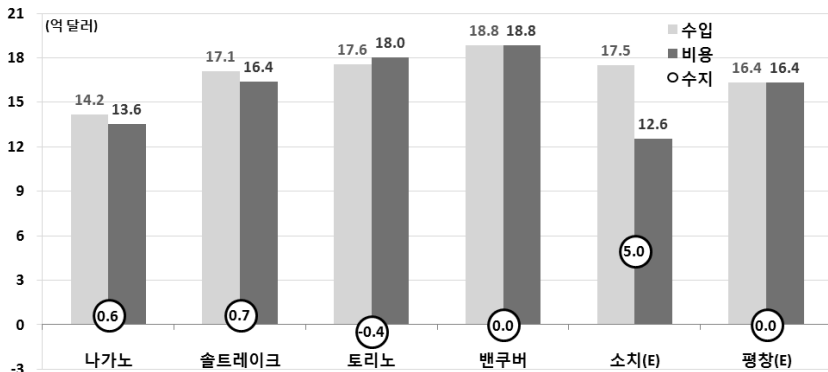
16) 사실 소치에 대한 평가에 있어 서방언론의 태도는 일관되게 비판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IOC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비판적 태도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을 수도 있다.

17) 이 신설된 기차노선에 대한 논의는 앞의 각주 16을 참조할 것.

든지 IOC는 올림픽 개최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다가, 주최국 또한 세세한 내용들을 밝히는 것을 꺼려한다(Shaw 2008, 183). 대개의 경우 언론에서 희미하게 규정된 숫자들을 추정해낼 뿐이다. 이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을 밝혀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게임의 어떤 부분이 포함되고 어떤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았는지가 대개의 경우 뚜렷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이다(Horne and Whannel 2012, 4). 결국 비용계산에 있어서는 17일간의 운영경비 / 시설물 건축비용 / 인프라 구축비용 / 보안 등과 같이 평가 분야를 범주화 하여 비용을 계산하고 그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그 수치의 정확성은 결코 담보할 수 없다.¹⁸⁾

<그림 1>과 <그림 2>는 최근 동계올림픽 개최국의 대회운영수지와 올림픽 경기의 비용과 수익을 보여주고 있으며, <표 1>은 원래 계획된 예산이 실제로는 얼마만큼 초과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올림픽이 결코 수지맞는 장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며, 어떤 확고한 경제적 이득을 보장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게 한다.

<그림 1> 최근 동계올림픽의 대회운영수지 비교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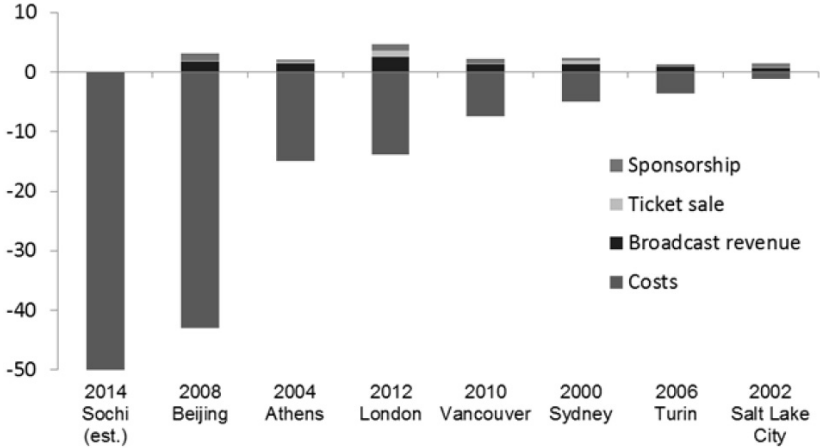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2014.

18) 소치 동계올림픽의 비용 편익 계산의 한 예로서 Pilipenko 2013을 참조할 것.

19) 2013년 미 달러화 기준; <그림 1>에 따르면 소치의 대회운영수지는 흑자로 나타나지만, 이는 단지 대회 운영에 한정된 것일 뿐, 행사 전체에 사용된 비용을 감안할 때는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림 2〉 올림픽의 비용과 수익 비교



출처: IOC. Ponomarenko and Plekhanov 2014에서 재인용.

〈표 1〉 최근 동계올림픽의 예산안 대비 최종지출 초과율

개최도시	개최국(연도)	예산안 대비 초과율 (단위: %)
밴쿠버	캐나다 (2010)	36.0
토리노	이탈리아 (2006)	113.0
솔트레이크시티	미국 (2002)	40.0
나가노	일본 (1998)	58.0
	4개국 평균	61.8

출처: Flyvbjerg and Stewart. 2012.

사실 현재의 상태에서 소치의 경제적 득실을 따지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와 구체적 데이터의 부족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많은 예측연구들이 이루어진 바 있지만 그 연구들 각각의 기준점들이 천차만별인데다가 러시아에서 공개된 (정부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는) 연구의 특성상 희망적 예측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²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소치 동계올림픽 준비에 사용된 예산이 터무니없이 많다

는 사실이다. 대외적으로 발표된 추산치가 500억 달러라고 했을 때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한 관광객과 소비가 이루어져야 할지 짐작하기조차 힘들다. 따라서 흔히 경제적 효과 분석에 있어 초점을 두는 동계올림픽 시설물 건설의 경제적 파급효과 / 동계올림픽 운영의 경제적 손익 계산 / 올림픽 종료 이후의 경제적 파급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은 의미 없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다른 부분이다. 러시아 정치경제에 관한 근자의 많은 연구들이 푸틴 대통령을 둘러싼 러시아 리더십의 사인화(私人化; personalisation)와 그를 둘러싼 이너 서클(inner circle)의 부패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Hill and Gaddy 2013). 석유 및 천연가스의 중요성과 매우 높은 수준의 부패를 강조하는 연구들(Goldman 2010; Gustafson 2012)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을 감안하였을 때 소치에 있어서는 경제적 이익 창출보다는 오히려 건설사업을 통한 지대분배의 효과를 누리려고 했다고 파악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게 비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패구조 하에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계산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 버린다. 그보다는 차라리 이러한 메가 이벤트의 지속적 창출을 통해 핵심 내부구성원들의 지대 공유를 확대함으로써 정권의 응집성과 지속성을 높이고자 하였다고 파악하는 것이 보다 더 논리적인 판단일 것이다.

IV. 소치 올림픽은 성공적이었는가?

소치 올림픽의 성공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먼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뚜렷이 제시되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성공했으나 정치적으로 실패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성공했으나 경제적으로 실패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 둘 다 절반의 성공으로 남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할 것이다. 더

20) 소치 동계올림픽의 비용 편익 계산 및 관광산업전망 등에 대한 논의는 Müller 2009, 2011; Tatarinov 2010; Andreff and Andreff 2011; Epstein 2014; Silaeva, Atamanova and Chkhikvadze 2014 등을 참조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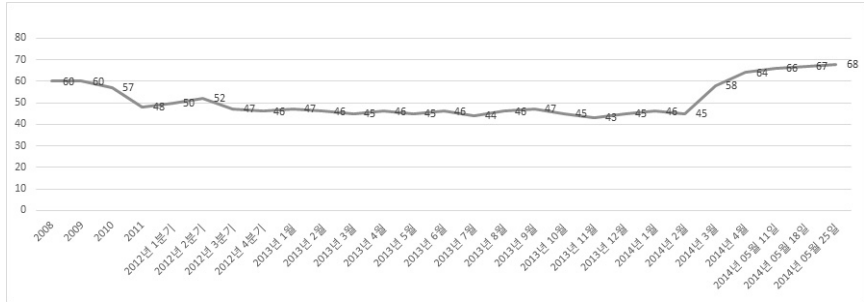
불어 같은 결과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공이나 실패냐를 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정할 것인지가 논의 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러시아로 하여금 올림픽 유치를 결정짓게 했던 두 가지 요소의 측면에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한다. 첫째, (대내적으로는) 국내적 과시와 지대의 분배를 통한 대중과 엘리트의 지지 및 충성의 확보이며, 둘째, (대외적으로는) 국가 이미지 고양을 통한 소프트 파워의 증진이다.

1. 국내적 과시와 지지 및 충성의 확보

국내적 과시를 통해 얼마만큼의 지지와 충성을 확보할 수 있었는가는 러시아 시민들의 푸틴에 대한 지지율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3>은 2008년 이후의 푸틴에 대한 지지율 변화를 보여준다. “다음 주 일요일에 러시아 대선이 있고 당신이 후보자를 선택한다면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말해주세요”라는 질문에 푸틴을 선택한 사람들의 비율이다. 그림을 보았을 때 2012년과 2013년 과반 이하였던 푸틴에 대한 지지율이 2014년 올림픽 폐막 직후인 3월을 기점으로 과반을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지율 변화에는 올림픽을 제외한 다른 요소,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푸틴의 강경대응 등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올림픽이 푸틴의 지지율이 상승하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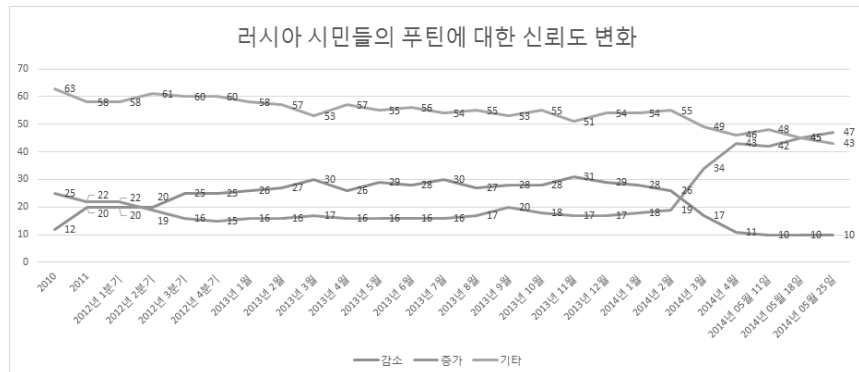
<그림 3> 러시아 시민들의 푸틴에 대한 지지율 변화



출처: Фонд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 *ДОМЦИННМЫ*, № 21 (2014.05.29.), стр. 3.

<그림 4>는 러시아 시민들의 푸틴에 대한 신뢰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최근 몇 년 동안 당신의 푸틴에 대한 신뢰도는 커졌는가, 줄어들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또한 <그림 3>과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2013년 2월까지 푸틴에 대한 신뢰가 감소했다는 대답이 푸틴에 대한 신뢰가 증가했다는 대답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2014년 3월을 기준으로 역전되어 푸틴에 대한 신뢰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났을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 러시아 시민들의 푸틴에 대한 신뢰도 변화



출처: Фонд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 *ДОМЦИННМЫ*, № 21 (2014.05.29.), стр. 4.

소치 올림픽이 푸틴에 대한 러시아 시민들의 지지 및 신뢰도를 높였다는 또

다른 근거로서 레바다 센터(Levada Center 2014)의 여론조사 결과를 들 수 있다. 올림픽 폐막 직전인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러시아 시민들의 90% 이상이 티비로 올림픽 경기를 시청했다고 응답했으며,²¹⁾ 77%는 소치올림픽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81%의 시민들이 애국심이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자긍심과 국가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고 응답한 시민들은 71%에 달하였다.²²⁾ 이 여론조사에서 푸틴이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설문항목이 의미하는 바를 감안할 때 이와 같은 긍정적 답변은 러시아 시민들의 푸틴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소치 동계올림픽 직후 전개된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친 강력한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공교롭게도 올림픽 폐막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전이 시차를 두지 않고 이루어짐으로써 올림픽이 미친 영향만을 온전히 잡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었다. 이와 같이 다른 많은 복합적 요인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너무 단순하게 파악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 위에 제시한 근거들을 놓고 보았을 때는 올림픽이 푸틴에 대한 지지도와 신뢰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올림픽을 통해 국민적 일체감을 조성하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높이려고 했던 푸틴의 의도가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지대의 배분을 통한 엘리트의 충성확보에 있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직접적 증거는 찾기 힘들다. 그러나 푸틴이 엘리트의 충성확보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그것이 비교적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서 비밀리에 크렘린궁에서 거행된 훈장수여식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에서 비교적 독립적 보도행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베도모스티(*Vedomosti*)의 보도에 따르면, 푸틴은 올림픽을 개최함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인사들에게 3월 말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훈장을 수여하였다(Tovkailo, Terenteva, Nikolskiy 2014). 이때 훈장을 받은 이들 중에는 인테로스(Interros)의 소유주 포타닌(Vladimir Potanin), 스베르뱅크(Sberbank) 회장 그레프(German Gref), 가즈프롬(Gazprom) 의장 밀러(Alexei Miller), 러시아철도 사장 야쿠닌(Vladimir Yakunin), 레

21) 소치 동계올림픽 개최기간은 2014년 2월 7일부터 23일까지임(현지시각 기준).

22) <http://www.levada.ru/03-03-2014/itogi-olimpiiskikh-igr-v-sochi> 검색일: 2014년 8월 15일.

노바(Renova) 회장 벡셀베르크(Viktor Vekselberg) 등이다. 이들 회사들은 올림픽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그 자금은 궁극적으로는 국가예산에서 빠져 나갔다(Orttung 2014, 8). 그리고 이들에 의해 집행된 예산이 얼마나 방만하게 사용되어졌는지는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 있으며, 사라진 예산이 어디로 갔을 것인가는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 소프트 파워: 강한 러시아와 국가 이미지

소치 올림픽 개최 목적 중의 하나는 러시아의 대외이미지를 향상 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래의 <표 2>와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올림픽이 결정되고 난 이후 러시아의 이미지에 특별한 변화가 생겼다고 보기는 힘들다. 아니 오히려 G7 국가의 경우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²³⁾ 특히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의 러시아 이미지는 급속히 하락해서 올림픽이 러시아의 대외 이미지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끼쳤든 그것을 모두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부정적 이미지를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다(Orttung 2014, 7). 2013년의 경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조사대상 38개 국가 중에서 호감도가 증가한 국가는 6개 국가에 불과하며 나머지 국가들은 호감도가 제자리이거나 감소하였다.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가 없었을 경우의 이미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데이터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올림픽 직후 갤럽(Gallup)이 미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갤럽의 미국인들의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 조사는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은 러시아의 몫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은 세계, 즉 나머지의 몫이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갤럽 조사에서 러시아와 푸틴에 대한 미국인들의

23)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 1년전인 2013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작성한 보고서는 러시아가 볼리비아, 베네수엘라에 이어 여행자들에게 가장 불친절한 도시 세계 3위에 올랐다고 언급하였다(Blanke and Chiesa 2013).

비호감도는 지난 2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표 3>, <그림 5>, <그림 6> 참조).

결국 이로 미루어 볼 때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특별한 애증의 관계를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러시아의 올림픽 개최가 다른 국가들, 특히 서구 국가들에 대하여 이미지 향상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프트 파워의 관계적 성격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²⁴⁾ 이러한 관계적 성격을 무시할 때 국가들은 쉽게 일방적 발신의 함정에 빠진다. 경쟁에서의 승리가 국가의 매력을 높일 수는 있지만 어떤 것이 매력적인가는 그것을 느끼는 상대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어떤 국가에게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서의 메달획득이나 우승이 매력적이고 존경스럽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국가에게는 국가 중심의 엘리트 스포츠 육성이나 민족주의적 성향의 노정이 두렵고 무서운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우수하고 강한 민족이라는 발신자의 매력의 투사가 수신자에게는 전체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이며 침략적인 민족의 비우호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의 저하는 소치 올림픽이 그 기대했던 바와 같은 ‘위대한 러시아’의 과시 여부 달성과는 상관없이 ‘매력적인 러시아’라는 이미지를 투사하는 데는 실패하였음을 보여준다.

또 하나, 러시아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이 호감과 비호감을 넘나드는 것과는 달리(<그림 5> 참조) 푸틴에 대한 비호감도는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그림 6> 참조). 이는 미국만의 독특한 현상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 외부의 시각이 푸틴과 러시아를 동일시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4) 소프트파워의 관계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손열 2009; Nye 김원석 옮김 2008 등을 참조할 것.

〈표 2〉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 변화 (% Favorable)

	2007	2009	2011	2012	2013	07-13 변화	2014	전년대비 증감
U.S.	44	43	49	37	37	-7	19	-12
Canada	52	51	--	--	42	-10	--	--
Britain	47	45	50	38	38	-9	25	-13
France	35	43	53	36	36	+1	26	-10
Germany	34	42	47	33	32	-2	19	-13
Italy	37	--	--	23	31	-6	20	-11
Spain	35	36	46	36	38	+3	18	-20
Greece	--	--	--	61	63	--	61	-2
Poland	34	33	35	34	36	+2	12	-24
Czech Rep	41	--	--	37	41	0	--	--
Turkey	17	13	18	16	19	+2	16	-3
Egypt	46	48	35	31	30	-16	24	-6
Jordan	48	42	31	26	25	-23	22	-3
Lebanon	48	57	53	48	46	-2	45	-1
Palest. ter.	30	33	34	--	29	-1	41	+12
Tunisia	--	--	--	40	35	--	35	0
Israel	29	31	29	--	21	-8	30	+9
Australia	--	--	--	--	42	--	--	--
China	54	46	47	48	49	-5	66	+17
Indonesia	36	32	35	--	43	+7	38	-5
Japan	22	23	28	22	27	+5	23	-5
Malaysia	46	--	--	--	47	+1	34	-13
Pakistan	18	10	15	20	19	+1	11	-8
Philippines	--	--	--	--	35	--	46	+11
S. Korea	54	50	--	--	53	-1	43	-10

	2007	2009	2011	2012	2013	07-13 변화	2014	전년대비 증감
Argentina	19	23	--	--	26	+7	19	-7
Bolivia	--	--	--	--	22	--	--	--
Brazil	--	--	33	27	34	--	24	-10
Chile	47	--	--	--	39	-8	34	-5
El Salvador	--	--	--	--	27	--	23	-4
Mexico	38	29	23	25	28	-10	21	-7
Venezuela	--	--	--	--	40	--	36	-4
Ghana	55	--	--	--	49	-6	42	-7
Kenya	57	35	34	--	47	-10	49	+2
Nigeria	--	--	--	--	38	--	41	+3
Senegal	--	--	--	--	42	--	39	-3
S. Africa	--	--	--	--	26	--	25	-1
Uganda	32	--	--	--	28	-4	34	+10

출처: Simmons 2014. (Pew Research Center) 저자에 의하여 수정됨.

〈표 3〉 러시아에 대한 미국인들의 견해 (%)²⁵⁾

	매우 호감	전반적 호감	전반적 비호감	매우 비호감	의견 없음
2014 Feb 6-9	5	29	43	17	6
2013 Feb 7-10	7	37	36	14	7
2012 Feb 2-5	6	44	33	11	6
2011 Feb 2-5	5	46	32	10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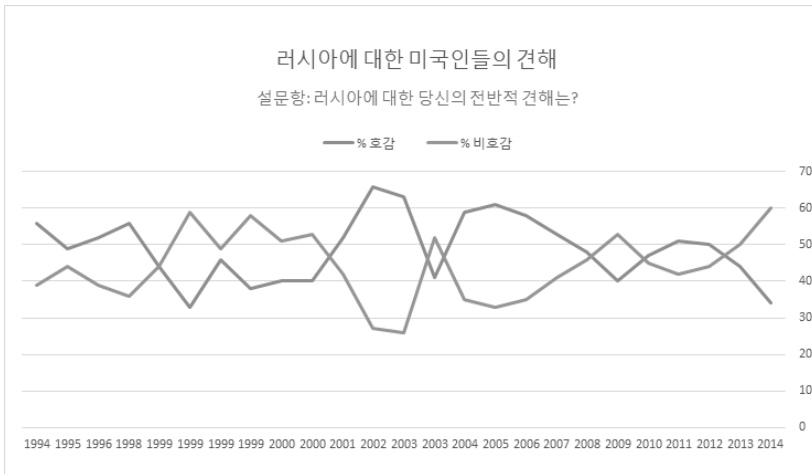
25) 설문항: 다음으로 몇몇 다른 국가들에 대한 전반적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당신의 전반적인 견해는 어떤 것인가요? 매우 호감, 전반적으로 호감, 전반적으로 비호감, 매우 비호감 중 하나를 택해 주세요(Next, I'd like your overall opinion of some foreign countries. What is your overall opinion of Russia? Is it very favorable, mostly favorable, mostly unfavorable, or very unfavorable?). / * 표본 수 절반 / ** 1989-1992까지는 설문시 Russia 대신 Soviet Union을 사용하였음.

	매우 호감	전반적 호감	전반적 비호감	매우 비호감	의견 없음
2010 Feb 1-3	6	41	35	10	7
2009 Feb 9-12	4	36	38	15	7
2008 Feb 11-14	4	44	35	11	5
2007 Feb 1-4	6	47	32	9	6
2006 Feb 6-9	5	53	27	8	7
2005 Feb 7-10	6	55	27	6	6
2004 Feb 9-12	7	52	26	9	6
2003 Mar 14-15*	4	37	40	12	7
2003 Feb 3-6	6	57	20	6	11
2002 Feb 4-6	11	55	20	7	7
2001 Feb 1-4*	6	46	27	15	6
2000 Nov 13-15	5	35	39	14	7
2000 Mar 17-19	5	35	39	12	9
1999 Nov 4-7	4	34	44	14	4
1999 May 7-9	4	42	36	13	5
1999 Apr 13-14	3	30	45	14	8
1999 Feb 8-9	6	38	34	10	12
1997 Nov 21-23	7	49	29	7	8
1996 Mar 8-10	6	46	29	10	9
1995 Apr 21-24	5	44	32	12	7
1994 Feb 26-28	8	48	28	11	5
1992 Feb 6-9**	12	45	20	13	10
1991 Nov 21-24**	7	45	24	12	12
1991 Aug 23-25**	9	51	22	9	9
1991 Aug 8-11**	11	55	19	6	9
1991 Mar 14-17**	6	44	32	10	8
1991 Jan 30-Feb 2**	8	49	26	9	8

	매우 호감	전반적 호감	전반적 비호감	매우 비호감	의견 없음
1990 Sep 10-11**	7	51	23	9	10
1990 May 17-20**	7	48	24	8	13
1990 Aug 10-13**	8	43	27	13	9
1989 Feb 28-Mar 2**	7	55	20	9	9

출처: <http://www.gallup.com/poll/1642/russia.aspx> 검색일: 2014년 8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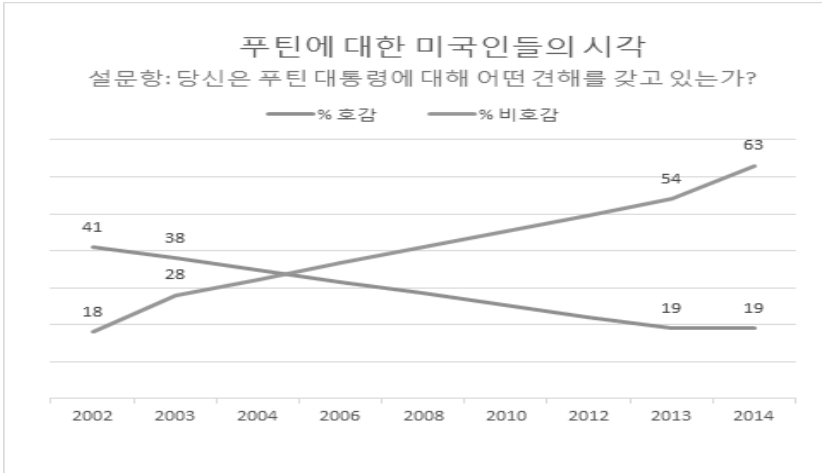
<그림 5> 러시아에 대한 미국인들의 견해²⁶⁾



출처: <http://www.gallup.com/poll/167402/americans-views-russia-putin-worst-years.aspx>

26) <그림 5>는 <표 3>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음. 연도가 중복되는 것은 그 해에 여러 번의 설문조사가 실시되었기 때문임.

〈그림 6〉 푸틴에 대한 미국인들의 시각



출처: <http://www.gallup.com/poll/167402/americans-views-russia-putin-worst-years.aspx>

V. 결론

본고에서는 러시아 메가 이벤트 개최의 정책결정 매트릭스를 살펴보고, 두 가지 요소에 근거해 소치 동계올림픽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그 하나는 ‘소치 동계올림픽이 대중과 엘리트의 지지와 충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이며, 다른 하나는 ‘러시아의 국가 이미지를 고양시킴으로써 소프트 파워를 증진시키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였는가’이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동계 올림픽 개최는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지지와 충성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평가해보자. 러시아적 맥락에서 메가 이벤트 및 프로젝트들은 현존하는 정권을 유지하는 강력한 정치적 역할을 하였다. 대중과 지배연합에 있어 엘리트들의 충성심을 보존함으로써 말이다. “이데올로기적 공허”(Popescu 2006)의 시대에 메가 이벤트를 개최한다는 것은 매체를 더 거대한 아이디어에 대한 논의로 가득 채움으로써 공산주의 혹은 민주주의 이데올

로기를 대신할 수 있게 한다. 마찬가지로 유흥과 일단의 발전적 목표를 제공함으로써 메가 이벤트는 크라스테프(Ivan Krastev 2011)가 소위 “좀비 권위주의(zombie authoritarianism)”라고 명명한 상태로 접어들게 된다. 이 속에서는 사람들이 설혹 그 상태에 대해 반드시 만족하지 않더라도 현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 올림픽을 비롯한 메가 이벤트들은 주최국의 국민들에게 자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며, 그 확장선상에서 그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한다. 게임을 위한 준비는 광범한 강압적 만족감을 만들어낸다. 러시아 티비는 국내의 대중들, 즉 시청자들에게 자신들의 국가가 발전하고 있으며 야당에 의해 옹호되는 정치적 저항과 같은 것들에 연계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신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Spa, Rivenburgh, and Larson 1995, 231). 러시아가 소치에서 획득한 많은 메달들과 메달리스트들에 대한 포상, 그리고 타국과의 비교는 러시아 국민으로 하여금 ‘우리는 1등 국민, 우리 국가는 1등 국가’라는 자긍심을 갖게 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며, 이는 지도자와 지배층에 대한 긍정적 수용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가했을 때 소치 올림픽은 러시아 지배 엘리트와 정권의 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 것만도 아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러하다.

첫째, 세계적인 메가 이벤트의 개최는 지배집단의 입장에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갖는다. 메가 이벤트 개최를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지배집단의 의도이지만, 일단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거쳐 메가 이벤트를 개최하기로 결정될 경우 이는 지배집단을 구속하는 하나의 족쇄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 메가 이벤트는 단지 국가에 의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 그 이상인 것이다. 메가 이벤트의 속성은 국가로 하여금 자신의 주권을 일정부분 양도하게 하고 국제적 스탠다드, 특히 소위 웨스턴 스탠다드(Western Standard)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한다. 따라서 푸틴의 올림픽도 그의 의도대로 모든 것들이 움직였다고 보기는 힘들다(Gronskaya and Makarychev 2014, 43). 1988년 서울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가 주목하는 메가 이벤트의 개최는 개최국으로 하여금 주변의 시선에 많은 신경을 쓰게 하는 것이다.²⁷⁾ 물론 그러한 주변의 시선을 무

27) 서울 올림픽 개최가 5공화국의 지배집단에 미친 영향과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정기웅

시하지 않고 나만의 독자적인 길을 고집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외부의 시선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²⁸⁾

둘째, 경제적 부담의 측면에서이다. 러시아의 경우 지금은 천연자원 가격의 상승으로 유리한 국가재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소치의 부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은 수준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많은 사업들과 지금까지 행해온 사업들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러시아 경제의 현 상태를 감안했을 때, 과연 국가가 언제까지 이러한 일방적 퍼주기 혹은 지대의 배분을 통해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이 될 수밖에 없다. 어디선가 하나의 움직임이 어긋나는 경우 지금까지의 선순환 구조가 일시에 정지하고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감안해야 할 또 다른 하나는 메가 이벤트 개최를 통한 지대의 분배가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지대의 배분을 통해 엘리트의 충성심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동시에 그 분배과정에서 소외된 집단의 강한 반발을 이끌어 낼 수밖에 없다. 2013년 2월 러시아의 블로거인 비취코프(Yegor Bychkov 2013)는 올림픽에 쓰일 예정인 450억 달러의 돈이 러시아 내부의 스포츠 진작을 위해 더 나은 방식으로 쓰일 수 있다고 계산을 통해 주장함으로써 러시아의 블로그계를 뜨겁게 달구었다. 그는 그 돈이면 러시아의 모든 도시에 수영장과 아이스링크와 축구 경기장과 헬스 센터를 지을 수 있다고 계산하였다. 이러한 건설과 동시에 또한 아이스 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 축구공, 배구공, 야구공을 사서 5세에서 25세 사이의 주민 모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푸틴의 비판자들인 넴초프(Boris Nemtsov)와 마르티뉴크(Leonid Martynyuk)가 저술하고 배포한 2013년 5월의 보고서는 “세계적인 가격 상승에 따라 소치 올림픽은 240억 달러를 치러야만 하며, 이는 푸틴대통령이 발표했던 120억 달러의 두 배가 되는 돈이다. 나머지(260억 달러)는 횡령과 뇌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Nemtsov and Martynyuk 2013). 2013년 6월 레바다 센터(Levada

2010을 참조할 것.

28)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경우 올림픽 정신에 충실하기 보다는 국가이익에 더욱 충실할 것이라는 주장 또한 존재한다. 이와 같은 논의에 대해서는 Alekseyeva 2014를 참조할 것.

Center)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러시아 시민의 65%가 올림픽을 위해 사용되는 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그저 도둑질 당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Levada Center 2013).

셋째, 피로감의 확산이다. 국제행사의 잦은 반복과 규모의 확대는 국민으로 하여금 기시감과 피로감을 느끼게 한다. 한 두 차례의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매일이 이벤트일 경우 그것은 축제의 즐거움보다는 축제가 끝난 후의 피로함을 더 크게 모든 국민에게 부여한다. 더군다나 그러한 축제의 준비와 진행을 위해 감당해야 할 부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러한 피로감은 심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피로감의 확산은 지도자에 대한 피로감과 직결되어진다. 1999년 푸틴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오르고 2000년 러시아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 최고 권력자의 자리를 유지한지 벌써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막 대통령에 당선됐을 시 40대였던 나이는 이제 60대에 접어들었다. 40대였던 푸틴의 이미지는 젊고 역동적이며 활기찬 (young, dynamic and vibrant) 지도자의 모습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곳곳에서 침체된 푸티니즘(stagnant Putinism), 활기를 잃은 지루한 대통령이라는 불평이 터져 나오고 있다(Judah 2013). 이는 푸틴의 인기와 장악력 또한 어느 한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음을 뜻하며, 러시아 경기의 지속적 침체는 푸틴 지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큰 까닭에, 그 퇴장의 시기는 매우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푸틴은 이러한 매너리즘과 피로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메가 이벤트와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계획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메가 이벤트와 프로젝트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과 동일시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그 시도는 성공하였다. 적어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성공적이었던 소치 동계올림픽의 폐막 직후 최소한 러시아 내부에서는 푸틴에 대한 지지율과 신뢰도가 급속히 상승하였고, 그의 권력은 더욱 공고화 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승승장구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다. 더군다나 지금과 같이 러시아 외부에 있어 일부를 제외한 모두가 온통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내부의 통제에 조금이라도 실패하는 순간, 혹은 내부의 지지가 사그러들기 시작하는 순간, 막강한 외압은 푸틴과 러시아로 하여금 또 다른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자리하게 할 것이다.

다음으로 러시아의 국가 이미지 상승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했을 때 이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혹여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올림픽 폐막 직후 이어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러시아의 이미지는 (특히 서구에서) 극도로 악화되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외부의 압력에 연연하지 않는 강인한 국가지도자의 면모를 과시함으로써 이와 같은 위기가 푸틴에게는 러시아 내부에 대한 통제력을 공고히 하는 기회로서 작용했다고도 할 수 있다. 즉 러시아의 동계올림픽 개최 목적의 비중을 어느 쪽에 더 부여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에 대한 판단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내적 목적이 더 우선시된다면 충분히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할 수 있을 것이고, 대외적 목적이 더 우선시된다면 온전히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하기에는 많은 약점이 존재한다.

결국 소치 동계올림픽은 러시아 역사, 혹은 푸틴의 권력사에 있어 성공과 실패로 나아가는 매우 중대한 변곡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성공의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실패의 길로 나아가느냐는 지도자 개인, 러시아의 지배집단, 러시아 국민, 그리고 세계시민과 국제사회와의 역동적 상호작용 속에 결정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문자료

- 김은혜. 2011. "2016년 도쿄올림픽의 좌절과 도시의 정치경제." 『공간과 사회』 21권 3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CIS 6월통계." 『KIEP 세계경제 통계』. 2014년 6월 12일.
- 민지영. 2014. "우크라이나 위기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KIEP 지역경제포커스』 8-8.
- 박보현. 2010. "한국 지방정부의 헤게모니 프로젝트: 강원도의 2010/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중심으로."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3권 3호.
- 손열. 2009. "소프트 파워와 정책 담론: 경합하는 일본의 정체성." 김상배 역음. 『소프트 파워와 21세기 권력: 네트워크 권력론의 모색』. 서울: 한울아카데미.
- 안영도. 2002. 『월드컵 그 환희의 뒤 끝』. 서울: 비봉출판사.
- 정기웅. 2009. "스포츠와 공공외교 수렴 가능성의 모색: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21-2.
- 정기웅. 2010. "전두환 정부의 외교정책과 1988년 서울올림픽." 함택영 · 남궁곤 편. 『한국 외교정책: 역사와 쟁점』. 서울: 사회평론.
- 정기웅. 2012. "올림픽의 정치경제와 평창 동계올림픽."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5-2.
- 정성춘. 2014. "2014년 하반기 세계경제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4-4.
- 정진영. 2004.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 우철구 · 박건영 편, 『현대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서울: 사회평론.
- 정희준. 2008. "스포츠 메가이벤트와 경제효과 - 그 진실과 허구의 재구성."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1-1.
- 현대경제연구원. 2014.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조건." 『경제주평』 14-08.
- Nye, Joseph S., 김원석 옮김. 2008. 『조지프 나이의 리더십 에센셜』. 서울: 교보문고.

2. 영문자료

- Alekseyeva, Anna. 2014. "Sochi 2014 and the rhetoric of a new Russia: image construction through mega-events." *East European Politics* 30-2.
- Andranovich, G., Burbank, M. J. & Heying, C. H. 2001. "Olympic cities: Lessons learned from mega-event politics." *Journal of Urban Affairs* 23-2.
- Andreff, Madeleine and Wladimir Andreff. 2011. "Economic Prediction of Medal Wins at

- the 2014 Winter Olympics." Working Paper prepared for the 3rd European Conference in Sports Economics, Vysoka Skola Ekonomicka, Prague, 17-18 May.
- Anholt, Simon. 2010a. *Places: Identity, Image and Reputation*. London: Palgrave.
- Arnold, Richard and Andrew Foxall. 2014. "Lord of the (Five) Rings: Issues at the 2014 Sochi Winter Olympic Games." *Problems of Post-Communism* 61-1.
- Aron, Leon. 2014. "Russia's Precarious Olympics." *AEI Russian Outlook*. Winter.
- Baldwin, David. 1979. "Power Analysis and World Politics: New Trends versus Old Tendencies." *World Politics* 31-2.
- Black, David, and Janis Van Der Westhuizen. 2004. "The Allure of Global Games for 'Semi-Peripheral' Polities and Spaces: A Research Agenda." *Third World Quarterly* 25-7.
- Blanke, Jennifer and Thea Chiesa. eds. *The Travel and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13*. World Economic Forum.
- Bryce-Rogers, Athena. 2013. "Russian Military Reform in the Aftermath of the 2008 Russia - Georgia War." *Demokratizatsiya: The Journal of Post-Soviet Democratization* 21-3.
- Bychkov, Yegor. 2013. "Vmesto Olimpiada v Sochi".
<http://egor-bychkov.livejournal.com/2013/02/02/> 검색일: 2014년 7월 5일.
- Cornelissen, Scarlett and Kamilla Swart. 2006. "The 2010 Football World Cup as a political construct: the Challenge of making good on an African promise." *The Sociological Review* 54-2.
- Cornelissen, Scarlett. 2010. "The Geopolitics of Global Aspiration: Sport Mega-events and Emerging Power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27.
- Epstein, Adam. 2014. "The Olympics, Ambush Marketing and Sochi Media." *Arizona State University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3-2.
- Flyvbjerg, Bent and Allison Stewart. 2012. "Olympic Proportions: Cost and Cost Overrun at the Olympics 1960-2012." *Saïd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s*. Oxford: University of Oxford.
- Flyvbjerg, Bent. 2006. "Design by Deception: The Politics of Megaproject Approval." in Saunders, William. ed. *Urban Planning Toda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Goldman, Marshall I. 2010. *Petrostate: Putin, Power and the New Rus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ratton, Chris, and Holger Preuss. 2008. "Maximizing Olympic Impacts by Building up Legaci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25-14.
- Grix, Jonathan. 2013. "Sport Politics and the Olympics." *Political Studies Review* 11-1.
- Gronskaya, Natalia and Andrey Makarychev. 2014. "The 2014 Sochi Olympics and 'Sovereign Power': A Political Linguistic Perspective." *Problems of Post-Communism* 61-1.
- Gustafson, Thane. 2012. *Wheel of Fortune: The Battle for Oil and Power in Russia*.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Hedlund, Stefan. 2014. *Russia as an Energy Superpower: Empty Threat or Serious Problem?* Boulder, CO: Lynne Rienner Publishers.
- Hill, Christopher R. 1992. *Olympic Politic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Hill, Fiona, and Clifford G. Gaddy. 2013. *Mr. Putin: Operative in the Kremlin*.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Horne, John and Wolfram Manzenreiter. 2006. "An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sports mega-events." *The Sociological Review*. 54-2.
- Horne, John, and Garry Whannel. 2012. *Understanding the Olympics*. London: Routledge.
- Horne, John. 2007. "The Four 'Knowns' of Sports Mega-Events." *Leisure Studies* 26-1.
- Hughes, Kate. 2012. *Mega Sports Events and the Potential to Create a Legacy of Increased Sport Participation in the Host Country*. in Shipway, Richard and Alan Fyall. ed. *International Sports Events: Impacts, Experiences, and Identities*. London: Routledge.
- Jinxia, D., and J. A. Mangan. 2008. "Beijing Olympics Legacies: Certain Intentions and Certain and Uncertain Outcom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25-14.
- Judah, Ben. 2013. *Fragile Empire: How Russia Fell In and Out of Love with Vladimir Puti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Kalachinsky, Andrey. 2010. "Putin Is Turning Vladivostok into Russia's Pacific Capital." *Russian Analytical Digest* 82.
- Kishkovsky, Sophia. 2007. "After Celebrating Winning Bid, Russia Has Work Ahead." *The New York Times*. July 6.
- Krastev, Ivan. 2011. "Paradoxes of the New Authoritarianism." *Journal of Democracy* 22-2.

- Large, David Clay. 2012. *Munich 1972: Tragedy, Terror, and Triumph at the Olympic Games*.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Lelyukhin, Alexander. 2014. "A federal law on hosting Confederation Cup 2017 and World Cup 2018 in Russia: An overview, state commitments and specific provisions." *International Sports Law Journal* 14.
- Mangan, J. A. 2008. "Prologue: Guarantees of Global Goodwill: Post-Olympic Legacies - Too Many Limping White Elephan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25-14.
- Medetsky, Anatoly. 2013. "Plan for Far East Development Unveiled." *Moscow Times*.
- Meredova, Alina. 2013. "Sochi Tour: Vladimir Putin's Favorite Playground." *Telegraph* December 5.
- Moravcsik, Andrew. 1997. "Taking Preferences Seriously: A Liber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51-4.
- Moretti, Anthony. 2013. "The Interference of Politics in the Olympic Games, and How the U.S. Media Contribute to It." *Global Media Journal - Canadian Edition* 6-2.
- Müller, Martin and Sven Daniel Wolfe. 2014. "World Cup Russia 2018: Already the Most Expensive Ever?" *Russian Analytical Digest* 150. June 25.
- Müller, Martin. 2009. "Measuring the regional economic impact of mega-events: what are the benefits of the 2014 Olympics for Sochi?" in Romanova, G. ed. *Professional training for the XXII Olympic and XI Paralympic Winter Games: problems and perspectives*. Sochi: Sochi State University for Tourism and Recreation.
- Müller, Martin. 2011. "State Dirigisme in Megaprojects: Governing the 2014 Winter Olympics in Sochi." *Environment and Planning A* 43-9.
- Müller, Martin. 2012. "Popular Perception of Urban Transformation Through Mega-Events: Understanding Support for the 2014 Winter Olympics in Sochi." *Environment and Planning C: Government and Policy* 30-4.
- Müller, Martin. 2014. "Winter Olympics Sochi 2014: what is at stake?" *East European Politics* 30-2.
- Olins, Wally. 1999. *Trading Identities: Why Countries and Companies Are Becoming More Alike*. London: Foreign Policy Centre.
- Orttung, Robert W. and Sufian Zhemukhov. 2014. "The 2014 Sochi Olympic

- mega-project and Russia's political economy." *East European Politics* 30-2.
- Orttung, Robert. 2014. "The Legacy of the Sochi Olympics." *Russian Analytical Digest* 150. June 25.
- Orueta, Fernando, and Susan Fainstein. 2009. "The New Mega-Projects: Genesis and Impact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2-4.
- Owen, Jeffrey G. 2005. "Estimating the Cost and Benefit of Hosting the Olympic Games: What Can Beijing Expect from its 2008 Games?." *The Industrial Geographer* 3-1.
- Persson, Emil and Bo Petersson. 2014. "Political mythmaking and the 2014 Winter Olympics in Sochi: Olympism and the Russian great power myth." *East European Politics* 30-2.
- Petersson, Bo, and Karina Vamling. eds. 2013. *The Sochi Predicament: Contexts, Characteristics, and Challenges of the Olympic Winter Games in 2014*. Newcastle upon Tyn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 Petersson, Bo. 2014. "Still Embodying the Myth? Russia's Recognition as a Great Power and the Sochi Winter Games." *Problems of Post-Communism* 61-1.
- Pilipenko, Igor V. 2013. *The Sochi 2014 Winter Olympics – the cost-benefit analysis and ways to improve the project efficiency*. Electronic Publications of Pan-European Institute.
- Popescu, Nicu. 2006. "Russia's Soft Power Ambitions." *CEPS Policy Brief* 115.
- Preuss, Holger. 2004. *The Economics of Staging the Olympics*. Northampton, Massachusetts: Edward Elgar Publishing, Inc.
- Ren, Xuefei. 2008. "Architecture and Nation Building in the Age of Globalization: Construction of the National Stadium of Beijing for the 2008 Olympics." *Journal of Urban Affairs* 30-2.
- Reshetnikov, Anatoly. 2011. "Demokratizatsiya: The Journal of Post-Soviet Democratization." *Russia's Great Project' Politics* 19-2.
- Roche, Maurice. 2000. *Mega-events and Modernity: Olympics and Expos in the Growth of Global Culture*. London: Routledge.
- Senn, Alfred Erich. 1999. *Power, Politics, and the Olympic Games*. Champaign: Human Kinetics Press.
- Shaw, Christopher A. 2008. *Five Ring Circus*. Gabriola Island: New Society Publishers

- Siegfried, John & Andrew Zimbalist. 2006. "The Economic Impact of Sports Facilities, Teams and Mega-Events." *The Australian Economic Review* 39-4.
- Silaeva, Anna Alexandrovna, Marija Anatol'evna Atamanova, Nelli Avtandilovna Chkhikvadze. 2014. "Development of resort and tourist potential as a promising avenue of socio-economic growth in Russia." *Life Science Journal* 11.
- Simmons, Katie. (2014). *Russia's global image negative amid crisis in Ukrain*. Pew Research Center.
- Spa, Miguel de Moragas, Nancy K. Rivenburgh, and James F. Larson. 1995. *Television in the Olympics*. London: John Libbey.
- Szymanski, S. 2002. "The Economic Impact of the World Cup." *World Economics* 3-2.
- Szymanski, S. 2009. "Myths About Landing the Olympics." *The Washington Post*. Dec. 4.
- Tatarinov, Andrei A. 2010. "Olympic winter games in Sochi - costs and expected benefits." *Baltic Rim Economies Bimonthly Review* 4.
- Ulyukaev, Aleksei. 2013. O gosudarstvennoi programme Rossiiskoi Federatsii "Ekonomicheskoe razvitie I innovatsionnaya ekonomika."
- Whitson, David and John Horne. 2006. "Underestimated Costs and Overestimated Benefits? Comparing the Outcome of Sports Mega-Events in Canada and Japan." in Horne, John and Wolfram Manzenreiter ed. *Sports Mega-Events: Social Scientific Analyses of a Global Phenomenon*. Malden, MA: Blackwell.

3. 로문자료

Фонд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 *ДОМЦИАННЫ*, № 21 (2014.05.29.), ст. 3.

4. 인터넷자료

- Bowring, Bill. "The Five Extraordinary Features of the Sochi Winter Olympics." E-International Relations.
<http://www.e-ir.info/2014/01/24/the-five-extraordinary-features-of-the-sochi-winter-olympics/> 검색일: 2014년 7월 5일.
- Levada Centre. 2013. "Obschestvennoe mnenie ob izderzkach Olimpiacy." June 6.
<http://www.levada.ru/books/obshchestvennoe-mnenie-2012-eng>.
- Nemtsov, Boris and Leonid Martynyuk. 2013. "Winter Olympics in the Sub-Tropics:

Corruption and Abuse in Sochi."

<http://www.interpretermag.com/winter-olympics-in-the-sub-tropics-corruption-and-abuse-in-sochi/> 검색일: 2014년 8월 15일.

Ponomarenko, Olga and Alexander Plekhanov. 2014. "Economic impact of the 2014 Sochi Winter Olympics." *Europa Bank*. February 5.

<http://www.ebrd.com/pages/news/press/2014/140205.shtml> 검색일: 2014년 8월 15일.

Tovkailo, Maksin, Aleksandra Terenteva, Aleksei Nikolskiy. 2014. "Putin nagradil oligarkhov i rukovoditelei goskompaniy za Olimpiadu(Путин наградил олигархов и руководителей госкомпаний за Олимпиаду: Putin awarded the oligarchs and managers of state companies for the Olympics." *Vedomosti.ru*. June 3.

<http://www.vedomosti.ru/politics/news/27285521/olimpijskie-geroi#ixzz35BsloKA> 검색일: 2014년 8월 15일.

Volkov, Vladimir. 2014. "Sochi. Taina 'Belkyh Slonov'." April 22.

<http://ej.ru/?a=note&id=24980> 검색일: 2014년 8월 15일.

"Tuda I doroga"[That Serves Them Right]. 2010. *Esquire (Russia)* July 7.

<http://esquire.ru/sochi-road> 검색일: 2014년 8월 15일.

<http://www.gallup.com/poll/1642/russia.aspx> 검색일: 2014년 8월 15일.

<http://www.gallup.com/poll/167402/americans-views-russia-putin-worst-years.aspx>

검색일: 2014년 8월 15일.

<http://www.gallup.com/poll/167402/americans-views-russia-putin-worst-years.aspx>

검색일: 2014년 8월 15일.

투고일: 2014.08.31, 심사일: 2014.10.15, 게재확정일: 2014.10.19

【ABSTRACT】

The Political Economy of Mega Events of Russia and Sochi Winter Olympic Games: the Point of Inflection between Success and Failure

Jung, Giwoong |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matrix of policy decision making of hosting the mega events in Russia and also to reviews the politico-economic ambitions of hosting them. In this vein, this article focuses on two points. One is to find out whether Russian government was successful in achieving the support and loyalty of the elites and the public through showing off and rent distribution. The other is to check whether the mega events were useful to improve the soft power of Russia through extending the national brand image of Russia. With focusing these two points, this article trie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Sochi Winter Olympic Games and its implications. Against this backdrop, the article discusses the success and failure of Sochi Winter Olympic Games, which leads to grasping the implications of Russia's experiences cast on hosting mega-events.

With its own criteria, this article concludes that Sochi Winter Olympic Games can be evaluated as half success and half failure. In terms of securing the support and loyalty, it was quite successful, but in terms of having improved national image, it is not easy to say that it was successful.

To conclude, Sochi Winter Olympic Games will be recorded as an important point of inflection between success and failure of President Putin's history of holding power. Whether the point will lead to the success or failure depends on the interactions among the leader, power elites, the public, world citizens and international society.

Key Words | Russia, Sochi Winter Olympic Games, political economy, sport politics, mega event